

장현식 잃은 KIA, '국대 필승조' 조상우 품었다



내년 신인 지명권+현금 트레이드
키움에 1·4라운드와 10억 양도
전상현·정해영과 JJJ trio 재편
“현장과 불펜 보강 필요성에 공감”



자유 계약(FA) 시장에서 장현식을 잃은 호랑이 군단이 조상우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뒷문 보강에 성공했다. 조상우는 광도규, 최지민, 전상현, 정해영 등과 함께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할 전망이다. KIA타이거즈는 키움히어로즈와 신인 지명권 및 현금 트레이드

KIA타이거즈가 키움히어로즈와 신인 지명권 및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투수 조상우를 영입했다. 조상우가 지난 2021년 8월7일 일본 가나가와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미니카공화국과 2020 도쿄 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 6회초 2사 만루에서 위기를 막아낸 뒤 포효하고 있다. 뉴스시스

를 통해 투수 조상우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IA는 키움에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및 4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10억원을 양도했다.

조상우는 명실상부한 키움의 마무리 투수이자 국가대표 필승조로 활약했다. 인천서화초-상인천중-대전고를 거친 그는 2013 프로야구 신인선수 지명회의에서 전체 1순위(1라운드 1순위)로 넥센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줄곧 히어로즈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한 조상우는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343경기에 나서 419.1이닝을 소화하며 3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와 평균자책점 3.11을 기록했다.

특히 그는 넥센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회 복구에 입한 2022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 줄곧 마무리를 책임져 왔고, 2020년에는 세이브왕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조상우의 존재감은 KBO 리그에 국한되지 않았다. 조상우는 2015년과 2019년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7경기에서 7.2이닝을 소화하며 단 1실점만 내주는 위력을 과시했고 2021년 도쿄 올림픽 6경기에서는 8이닝을 책임

지며 역시 1실점만 허용하며 국가대표 필승조로 맹위를 떨쳤다.

KIA는 조상우의 영입을 통해 비시즌 최대 고민을 완벽히 털게 됐다. 앞서 FA 자격을 취득한 장현식이 LG트윈스로 이적을 택하며 KIA는 필승조에 공백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필승조 재편 역시 완료된 모양새다. KIA는 올해 광도규와 최지민,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으로 필승조를 꾸렸다. 내년에는 장현식의 빈자리에 조상우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9월까지 'JJJ trio'로 불리던 장현식과 전상현, 정해영의 라인업도 전상현과 조상우, 정해영으로 유지된다.

삼재학 단장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 트레이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KIA 관계자는 “최근 전력 보강과 관련돼 자주 소통이 있었다. 올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고 전력 구성에 대한 중요성이 컸다”며 “불펜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이면서 트레이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 이어 “지난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양 팀 단장의 만남이 1차로 성사됐고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주 실행위원회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면서 트레이드가 급진전됐다”고 덧붙였다.

이범호 감독으로서의 구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행복한 고민을 안게 됐다. KBO 리그 정상급 클로저인 정해영과 조상우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서 두 선수의 등판 시점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해졌다. 내년에는 두 선수가 8회와 9회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단으로서의 신규 과제도 생겼다. 첫째는 조상우의 건강 관리다. 조상우는 올해 어깨 부상으로 두 차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투수에게는 치명적인 부위인 만큼 부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조상우와 동행이다. 조상우는 내년 정규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면 FA 자격을 얻는다. 구단이 비FA 다년 계약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조상우가 시장 평가를 택한다면 동행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조상우가 올해까지도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스스로 밝혀온 점도 변수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 '올해의 선수' 선정

2024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
수피아여중 농구 '올해의 상'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이 2024년 광주체육을 빛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19일 광주 빙고을체육관에서 '2024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시상 및 포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상갑 광주시 부시장과 각 종목단체장을 비롯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 선수와 스키시성은미 동호인이 경기상 부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고승환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4관왕(200m·400m계주·1600m 혼성계주·1600m계주)과 한국신기록 1개(1600m 혼성계주), 대회신기록 2개(남자 400m계주·200m)를 일구며 광주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의 상'에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 우승으로 대회 3연패를 달성하고 올시즌 치른 4개의 전국대회(제61회 춘계중고농구연맹전·연맹회장기·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24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를 제패한 광주수피아여중 농구팀과 광산구체육회가 선정됐다.

'올해의 클럽'에는 광주다움스포츠클럽이, '올해의 감독'은 한영일 조선대 축구감독이, '올해의 지도자' 이선영 수피아여중 농구코치와 최강 광주시구체육회 지도자가 각각 수상했다.

박선배 광주국무도연맹 회장,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 이정하 광주근대5종연맹 부회장, 김태연 광주시체육회 감사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19일 광주 빙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4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경기상 수상자들에 상장과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관, 지재구 광주북구야구협회장, 한선엽 광주서구축구협회장, 정진웅 우리건설대표이사, 박성필 광주배구협회 전무이사, 김재다 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 이애라 광주역도연맹 전무이사, 김혜정 북구체육회 지도자, 김상아 광주산악연맹 지도자, 고연복 생활체육광장지도자 등 13명은 시상상을 받았다.

박병석 광주야구협회 전무이사, 나샘이나 광주에어로빅합체협회 전무이사, 김치환 광주교육청 장학사, 오영길 OK저축은행 오앤터비팀 감독, 김강현 광주탁구협회 사무국장, 윤일현 문흥중앙초 교감 등

13명은 의장상을 수상했다.

특별공로상은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평생 이바지한 원로체육인으로 이제방 광주시검도회 자문위원과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을 지낸 김광수 광주시배구협회 자문위원이 받았다.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종합 종합 1위에 오른 궁도와 종목 종합 2위를 차지한 스키시·에어로빅합체, 종합 3위를 기록한 근대5종이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오상봉 광주체고 체조감독과 유희진 광주체고 조정 지도자, 문두운 조선대 축구

지도자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한 복싱 한영훈(광주동구청)이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체조 문건영(광주체고 3)과 육상 김지인(광주육상연맹)이 연패상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024년은 광주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광주체육인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25년 을사년에는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2024년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송년의 밤 성료

'체전 4관왕' 박승우 최우수선수
본보 한규빈 기자는 홍보상 수상

광주시 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 유공자들을 격려하며 올해 한 해를 마무리했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19일 오후 광주 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연회장에서 '2024년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겸 광산구장애인체육회장과 양오열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사업 성과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체육진흥상 봉정, 유공자 시상, 소원 나무 이벤트, 기념 촬영, 장애인 체육 가족 만찬 등이 진행됐다.

올해 최우수선수상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격 종목 4관왕에 오른 박승우가 거머쥐었다. 박승우는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을 시작으로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전, 혼성 50m소총 복사 R9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쓸어 담았고,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우수선수상 성인 부문에는 수영의 김방



광주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19일 2024년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본보 한규빈 기자(오른쪽 두번째)가 홍보상을 수상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제공**

울과 유근조, 역도의 박종선, 펜싱의 박현재, 탁구의 이준이 이름을 올렸고 학생 부문에는 배드민턴의 김시연과 이송후, 탁구의 박정호, 역도의 송은결과 신정아가 선정됐다. 신인선수상은 사이클의 박동환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지도자상에서는 광산구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 중인 김정희, 전지윤, 조현 지도자가 주인공이 됐고 우수지도자상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지도를 맡았던 탁구의 광호근 코치에게 돌아갔다.

전남일보 한규빈 기자는 홍보상을 수상했다. 한 기자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체육 분야를 전담하며 패럴림픽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물론 지역 장애인 체육계까지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환 복지TV 호남방송 본부장도 홍보상을 받았고, 이다민 광주보건대 간호학과 학생이 봉사상을 수상했다.

박병규 회장은 “올해도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이루며 156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중 유일하게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체육진흥상의 영예를 얻은 것 같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좋은 상을 받게 돼 굉장히 기쁘다. 내년에도 선수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우리 지역 장애인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